

#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많은 기업들을 이익급감이나 부도·파산 등의 경영위기로 빠뜨리고, 해당 기업들의 채무변제능력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간에 채권·채무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채무조정 중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과 채무면제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무자 A는 차입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받기로 함.

차) 차입금	1,000	대) 토지	700
		자산처분손익	100
		채무조정이익	200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은 경우 동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권자 B는 대여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해주기로 함(B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

차) 토지	800	대) 대여금	1,000
대손충당금	100		
대손상각비	100		

## 채무면제 등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채무조정

채무자는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 채무면제에 따른 채무자의 회계처리

차) 차입금	1,000	대) 채무면제이익	1,000
--------	-------	-----------	-------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그 차이금액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조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전체금액을 면제해주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조정 반영한다.

#### ◇ 채무면제시 채권자의 회계처리(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충당금과 우선상계)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대여금	1,000
----------	-------	--------	-------